

아름다운 후회

이소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가끔 자녀나 청소년 훈육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를 상담할 때 다음과 같은 조언 비슷한 말을 자주 한다. “앞만 보고 달려라.”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담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라.”라는 인생평을 듣는 때도 있다. 좋은 말이다.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봄 없이 오직 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힘있는 인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때때로 임종환자나 그 가족들한테서 의외의 말을 듣곤 한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라.”

‘너무 앞만 보고 달려라’는 것은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는 말 일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 것은 여러 뜻이 있다. 한가지에만 충실했을 수도 있고, 여유 없이 달려만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했냐 말이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주변도 살피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걸 잘못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일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는가? 열심히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임종이 가까우면 더 후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은 죽는 순간까지 있는 것일까?

후회하는 임종환자를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모두 안타까워한다. “그렇게 떠나는

것을... 좋은 것도 못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 뒤도 돌아보면서 살아야겠구나.”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사회 직장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술자리가 사교의 장이니 만큼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위암, 간암의 발병률이 점차 이삼십대 남자에서 높아가고 사망률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서 무리한 업무에 쉴 여유도 없이 계속 병을 사 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병으로 인해 병상에 젊은 임종환자를 많이 보게 된다. 자신의 젊음만을 믿고 돌보지 않은 건강관리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일찍 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

“아, 젊어서 고생은 건강을 관리하면서 해야겠구나.”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 셈이다.

‘한국의 여성은 착하고 희생적이며 살림 잘 하는 가장 우수한 가정경제학자이다.’

몇 년 전, 잘 아는 외국 간호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성의 다방면의 우수성을 이야기한다. 운동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희생적 봉

사로 국가, 사회, 기관(교회 등)에 모범을 보이고, 극성스럽다는 평을 듣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복부인(?)의 별명까지 들으면서 일으키는 가정경제의 주체적인 책임자다. 즉, 가정관리의 전천후 책임자다. 이런 노력과 희생의 보답은 당연히 행복과 가정의 평화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여자 임종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가족이나 친지의 설명을 듣는다.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자녀 성공을 볼 수 있을 텐데...출가도 못 시키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누구 때문에 얻어진 것이냐 말이다.”

다행히 희생적이었던 부인, 어머니의 노력을 인정하는 남편이나 자녀는 자신들의 무관심에 때늦은 후회를 한다. “그때 건강검진을 하라고 할 걸...”, “워낙 어머니는 건강하셨는데...” 때늦은 후회는 남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불행에 대한 절규로 메아리친다.

“아, 지나친 희생은 미덕이 될 수 없구나.”

우리나라 속담에 “시골부자 삼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농토로부터 얻은 수입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서울살림 보태주기에도 허덕이게 된다. 다행히 부모 뜻대로 잘 따라준 서울 유학생 자녀는 가족의 기쁨을 이어간다. 불행한 자녀도 있

다. 어렵게 학업을 끝냈으나, 여러 조건으로 만족할만한 직장이 안 되었을 때, 작거나 크거나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의 계속적 지원에 의지한다. 시골 부모님의 농토는 모두 날아가고 계속 사업은 잘 안 되고,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암이라는 불청객이 달려 들고.....

“차라리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나 질 것을...”

“좋은 시골 공기 속에 마음 편한 농사나 지었으면 부모님 재산이라도 지켰을 테고, 병도 얻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족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좌절로 모두 비통해 한다.

“아, 스트레스 관리는 분수에 맞는 미래 설계로부터 얻어지는 것인가 보다.”

후회는 반성이 동반된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반성하는 삶에 대한 보상을 하느님은 외면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임종환자가 후회할 때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환자는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둘러볼 여유 없이, 아름다운 후회도 없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케어 종사자가 느끼는 깨달음이다.

